

建築士와 建築·建設技術者와의 限界

金 枝 泰

(三亞建築事務所 代表)

(本協會 總務理事)

머릿말: 建築士와 建築의 建設技術者는 本質的으로 무엇이 다르며 그 限界란 무엇을 뜻하며 또한 어떠한 內容의 것으로 区分할 수 있을는지 매우 漠然한 難題라 본다. 다같이 建築界의 行動半徑을 가지고 있는 建築技術者라면 各者의 天賦의 人資質과 適性에 따라 設計分野 또는 建設施工面의 技術者로의 專門分野를 挾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綜合藝術物이며 그 時代의 文化尺度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建築의 發展을 위하여 無限한 情熱과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建築士와 建築技術者間에 어떤 限界가 있어야 한다면 이는 오로지 處理하고 있는 業務面에서만 成立이 可能하다고 본다. 建築技術者들은 「建築이라는」 큰 命題를 놓고 이를 消化하는 過程에서 다같이 目的하는 바는 建築의 基本的인 三要素(美, 構造, 機能)와 施工의 三要素(優秀, 經濟的, 合理的)를 갖춘 建築物을 短時日內에 얻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그러나 建築技術者인 建築士나 建設技術者는 業務處理面에서 限界의 模糊한 것으로 因하여 一般社會로 부터 이따금 物議의 對象으로 浮刻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拂拭하기 위해서도 한번쯤 彼此의 業務와 關聯시켜 그 限界에 對한 것을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한다.

첫째: 建築士와 建設技術者는 法的으로 부여받은 資格稱号이므로 一般社會에서 이를 包括的으로 建築技術者라 부른다.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否定할만큼 建築士와 建設技術者는 異質的인 性格이 아니므로 肯定하여도 無妨할 것이다. 技術은 어디까지나 人間의 目的을 위하여 自然을 支配하는 手段方法이므로 이를 理論에 立脚하여 應用하는 專門家라는 點에서 自然히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 본다. 다만 一般社會에 對하여 建築士와 建設技術者에 關한 職能을 올바르게 認識하여 그 業務를 依囑시켜 各者의 力量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余件을 造成하여 주기를 願하는 데 있는 것이고, 建築技術者는 所定法節次에 依하여 資格免許를 取得한 사람들이므로 社會로부터 責任이 強調되고 있느니만큼 共同運命體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位置에서 建築士와 建設技術者의 職能上的 特性을 表現한다면 建築士는 靜的인 面에 比하여 建設技術者는 動的인 面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建築主의 依賴로 設計한 建築物은 建築士의 藝術性과 個性 및 思想이 깃든 創作物이므로 精神面에 重點을, 建設技術者는 建築物을 具象化하기 위한 生産面에서 施工이란 手段을 써서 이를 綜合的이고 工學的인 見地와 技術面에서 CONDUCTOR을 하기 위한 多樣한 肉體的인 活動性이 要求되기 때문에 動的인 性格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設計圖書는 分明히 建築士가 作成한 것이며 創生되려는 建築物의 綜合的 技術者 書인 同時에 建築士의 意志인 것이다. 이러한 設計圖書는 現場의 PIONEER인 建設技術者의 手에 依하여 消化되면서 建築物의 完成을 보게 된다. 그러나 着工에서 竣工까지의 時空을 通하여 이따금 設計圖書 및 其他 余件으로 因하여 雙方間에 問題가 發生하는데 이는 建築技術者 사이에 自中之亂格인 所謂 “設計미쓰다” 또는 “施工미쓰다”라고 云云하면서 彼此의 業務處理에 따른 限界에 對한 區區한 意見으

로 말미암아 排難이 오고가는 이런 現象을 볼 때 建築技術者로서 各己 自省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본다.

設使 設計圖書의 착오가 있으면 作成者로서 責任을 갖고 是正하여야 할 反面에 別하자없는 設計圖書를 놓고 施工의 難易性을 強調하면서 唯我獨存式의 思考方式으로 處理하는 一部 建設技術者의 行爲에 있어서는 마땅히 是正되어야 함은 再言의 必要조차 없지만 大体로 設計圖書에 따른 要因을 集約해보면

- ① 表示內容의 正確性缺如.
- ② 表示內容의 表現貧弱으로 理解困難
- ③ 애매 한 구조工法等인 것이다. 이런 內容을 何等의 是正없이 處理할 수 없는 것도 바로 建築의 特殊性인 것이다. 때문에 設計圖書의 하자가 있을 때는 遲帶없이 責任지고 處理하여 주므로써 建設技術者로부터의 是非를 免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앞에서 論한 바, 設計圖書의 하자가 發生할 때에 建設技術者의 愆意的인 處理보다는 作成者인 建築主의 職能에 따른 立場을 깊은 理解와 協助 또는 研学하는 方向으로 이를 自覺 是正케 하는 方法을 써서 彼此 하자없는 建築物을 完成시키도록 知惠를 集中시킴이 妥當한 方法이지만 이와는 反對的으로 相對萬을 過少 評價하거나 또는 建設技術者自身이 設計圖를 能히 作成할 수 있다는 過信에서(?) 越權的인 一方處理로 말미암아 建築主로 하여금 建設技術者에 對한 印象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非一非再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樣相을 招來하는 根源的인 것은 建築技術者間에 不信에서 오는 경우와 또한 業務處理에 關한 限界線을 뚜렷이 認識 못한데서 오는 경우라고 본다. 實際로 따지고 보면 建設技術者 中에는 設計圖書作成에 能한 사람도 多數인 反面에 建設技術者와 같이 施工技術面의 卓越한 能力을 가진 建築士들도 많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各者의 特性에 맞는 專攻分野를 挾하여 그 活動 舞台를 갖고 있는 以上 相互間의 領域만은 確保되므로써 業務處理에 따른 限界線도 存在할 수 있는 것이다. 現行 우리나라의 建築技術政策面에도 制度的으로 이를 分離시켜 分野別로 業務處理에 따른 限界를 明示한 것으로서 즉 建設業法의 建設技術者란 「建設工事に 關한 企圖 및 施工을 指導, 監督할 수 있는 者」라고 規定한 것으로 보아 그 業務處理關係를 알 수 있고, 「建築士는 建築物의 設計와 建築工事監理에 關한 業務를 行한다」라고 建築士法에서 그 業務의 限界를 規定하고 있는 것으로미루어兩者의 業務處理에 關한 限界는 明確하여지는 것이다.

맺는말: 建築士나 建設技術者이든 간에 “建築”을 위한 技術開發과 創意性을 갖고 建築物의 質的인 向上과 社會福祉를 期하고자 無斷한 努力을 하고 있는 誠實한 建築技術者일 뿐만 아니라 前記한대로 建築과 같이 呼吸하고 있는 共同運命體임에도 不拘하고 業務를 통한 現實上的 여러가지 問題 때문에 限界를 떠난 処事로 因하여 是非를 하다보면 結果的으로 우리 建築技術者 自身들이 입고 있는 實情이므로 이러한 不條理한 事項을 속히 止揚함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建築技術者는 各己의 專攻分野에 忠實하고 또한 이에 따른 業務處理에 對한 限界를 確立 시키므로써 社會的인 地位向上과 權益保障도 바라 볼 수 있는 길의 하나라고 본다. 앞으로 「建築士가 무엇을 안다고?」 또는 「建築技術者가 무엇을 가지고?」하는 따위의 排難을 하기 위한 思考方式은 一掃하고 오직 社會에 對한 奉仕 및 使命感에 비추어 各己 業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함은 再言의 必要조차 없지만 宿命的으로 建築技術者인 우리는 未來를 向한 巨視的인 眼目에서 相互信賴와 協助로서 開拓하여야 할 無限한 建築舞台를 向해 一步一步 精進만이 우리를 위한 길인 동시에 自負와 襟持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